

자원의 양과 내집단이 아동의 선호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성 탐색

Received: March 21, 2022
Revised: October 13, 2022
Accepted: December 1, 2022

신여울¹, 조우리², 박다은³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¹,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²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³

교신저자: 박다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daeunp@skku.edu

In-group bias trumps amount of resource bias

Yeoul Shin¹, Woori Jo², Daeun Park³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Student¹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³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양과 내집단이 아동의 선호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1a(N=22)에서는 아동에게 자원(플레이도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래와 적게 가지고 있는 토래 중에 누구와 함께 놀이하고 싶은지를 물어 자원의 많고 적음을 기반으로 한 토래선호를 알아보았다. 실험 1b(N=22)에서는 아동에게 같은 색깔의 티셔츠와 다른 색깔의 티셔츠를 입은 토래 중 누구와 놀이하고 싶은지를 물어 최소집단 패러다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2(N=31)에서는 자원의 많고 적음과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이 토래선호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아동은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토래보다는 자원이 많은 토래를, 자신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을 외집단 토래보다는 자신과 옷 색깔이 같은 내집단 토래를 더욱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많고 적음 보다는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유아기 아동에게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원의 양, 최소집단, 내집단, 토래선호



© Copyright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가족, 특히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적 상호작용이 또래로 확장되는 유아기의 아동들은 어떠한 또래 아동을 선호할까?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들은 성별, 인종, 연령 등과 같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또래를 선호하며(Dunham et al., 2006; French, 1987; Maccoby & Jacklin, 1987),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 간 선호도의 상대적인 영향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Shutts et al., 2010). 예를 들어, 아동은 인종은 같지만 성별이 다른 또래보다 인종은 다르나 성별이 같은 또래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였다(Shutts et al., 2010).

더불어, 생물학적 기준 이외에도 자원의 양과 티셔츠 색깔과 같은 비생물학적 요인 역시 아동의 또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령, 유아 초기부터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또래보다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래를, 자신과 다른 색깔의 티셔츠를 입은 외집단보다는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은 내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Dunham et al., 2011; Shutts, 2015). 불변하는 생물학적 요인과 달리 비생물학적 요인은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생물학적 요인이 또래 선호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비생물학적 요인이 아동의 또래 선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성을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영어 표현 중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는 표현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흙수저’, ‘금수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분을 기준으로 사회적 집단을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인식하

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자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대방을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가령, 4세 유아도 자원이 많은 또래를 선호하며(Horwitz et al., 2014; Shutts et al., 2016), 자원이 많은 또래가 지적으로 더 유능하고, 인기가 많으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14; Shutts et al., 2016).

자원이 많은 개인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설명하는 한 가지 가설은 아동들은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원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상호호혜성(reciprocity)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Ahl & Dunham, 2019; Paulus et al., 2013). 예를 들어, 4~5세, 7~8세 아동들 모두 자원을 많이 가진 아동(곰 인형 8개)이 적게 가진 아동(곰 인형 3개)보다 다른 아동에게 자원을 나누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범문화적으로 나타난다(Ahl & Dunham, 2019).

하지만, 앞선 연구결과들은 자원을 많이 가진 아동이 내집단 혹은 외집단인지에 대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이 자원을 많이 가진 개인이 외집단일 경우에는 자원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동은 외집단보다는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욱 호의적으로 자원을 나누어 주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Dunham et al., 2011), 외집단 구성원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눔 행동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래가 내집단인지 혹은 외집단인지 구분하여 살펴 보지 않았기에 자원의 양에 대한 선호가 외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그 효과성이 감소하거나 상쇄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자원의 양과 내집단이라는 서로 상반된 비생물학적 요인들 간의 비교(i.e., 많은 양의 자원을 가진 내집단 구성원 vs. 적은 양의 자원을 가진 외집단 구성원)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자원의 양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또래선호가 내집단 선호보다 강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아동의 또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비생물학적 요인(자원의 양, 내집단 vs. 외집단)간의 상대적인 영향성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원에 근간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증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본 논문의 목적이 또래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학적 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성을 살피는 것이긴 하나 생물학적 기준에 근간한 또래선호를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기에 이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비생물학적 요인에 근간을 둔 또래 선호 연구를 소개하였다.

생물학적 요인에 근간한 또래선호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영유아기에는 성별, 인종, 연령 등 생물학적 요인들이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되며(이정민, 이강이, 2014; Dunham et al., 2006; Maccoby & Jacklin, 1987; Shutts et al., 2009), 이는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 대한 편향, 즉 내집단(in-group)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기도 한다(Buttleman & Böhn, 2014; Nesdale & Flesser, 2001).

가령, 아동은 다른 성별의 아동보다 동일한 성별의 아동과 놀이하기를 선호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유아기를 거치며 더욱 강해져, 6세에는 동일한 성별과 놀이하는 시간이 다른 성별과 놀이하는 시간의 11배가 된다(Maccoby & Jacklin, 1987).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들의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밝혀진 바 있다. 만 3세 아동의 경우 동성 친구 선호가 뚜렷하지 않았으나(홍순옥, 2003), 만 4·5세 유아의 경우 동성 친구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이태영, 2011; 홍순옥, 2003), 특히 5세 아동에게서 그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홍순옥, 2003).

인종 역시 아동의 또래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미국의 백인 아동은 흑인과 아시아인인 또래보다 백인 또래를 선호하였으며(Dunham et al., 2006), 자신과 같은 인종의 또래를 선호하는 만 6세 아동들은 자신과 동일한 인종은 긍정적 단어 및 정서와 연합시키는 반면, 타 인종은 부정적 단어 및 정서와 연합시키는 경향성이 있다(Dunham et al., 2008).

드물긴 하지만 각기 다른 기준으로 구성된 사회적 내집단의 상대적 영향성을 비교한 연구도 존재한다. 인종, 성별, 그리고 연령이 또래선호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아동은 인종보다 성별과 연령을 우선시하여 또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bel & Sahinkaya, 1962; Shutts et al., 2010). 가령, 만 3세 아동들은 성별 혹은 연령이 유사한 또래가 제안하는 장난감을 그렇지 않은 또래가 제안하는 장난감보다 더욱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인종은 아동의 장난감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과 연령

의 상대적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성별이 연령보다 더욱 강력한 내집단의 준거라는 것이 밝혀졌으며(Taylor & Gelman, 1993), 최근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반복 검증된 바 있다(Kim & Kim, 2020). 이러한 결과는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준 간에 상대적인 영향성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생물학적 요인에 근간한 또래선호

앞서 살펴본 성별, 인종, 연령 등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고 생물학적인 근간이 있는 기준 이외에도 티셔츠 색깔과 같이 임의적(arbitrary)으로 부여된 최소한의 단서가 아동의 또래선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Dunham et al., 2011; Dunham & Emory, 2014; Plötner et al., 2015). 예를 들어, 운동회에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팀별로 티셔츠를 맞춰 입는 것만으로도 내집단(in-group)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비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소 기준, 즉 최소집단 패러다임(minimal group paradigm)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심리학분야에서는 Henri Tajfel을 필두로 1970년대부터, 최소집단이 집단 편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Tajfel(1970)은 명목상으로는 집단을 구분하는 최소집단의 조건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집단 간 분류에 있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집단 사이에 경쟁이나 불평등한 지위의 격차가 없어야 하고, 셋째, 내집단 혹은 외집단과 차별적인 상호작용(면대면)의 기회가 부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별이나 인종은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티셔츠 색깔과 같이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나뉜 집단은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나타난 바 있다. Dunham 외(2011)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티셔츠 색깔만으로 최소집단을 구분하여 내집단 선호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들은 자신이 속한 최소집단에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였으며, 내집단 아동이 자신에게 더 많은 자원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nham et al., 2011).

앞서 살펴본 최소집단 패러다임에 따른 내집단 선호 이외에도 또래가 가진 자원의 양이나 질 역시 아동의 또래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만 4세부터 아동들은 더 많은 양의 자원(예: 플레이도우, 스티커)을 가진 인형을 적은 양의 자원을 가진 인형보다 선호하며(Li et al., 2014), 더 좋고 깨끗한 학용품과 옷을 가진 또래를 그렇지 못한 또래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utts et al., 2016).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자원의 양에 대한 정보는 또래선호를 넘어, 유능감, 책임감, 도덕성과 같이 더욱 광범위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만 4~5세 아동은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또래에 비해 자원을 더 많이 가진 또래가 지적으로 더욱 유능하고, 인기가 많으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Shutts, 2015; Shutts et al., 2016; Sigelman, 2012). 또한, 많은 양의 자원을 가진 인형을 적은 양의 자원을 가진 인형보다 도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Myślińska-Szarek & Baryła, 2018).

종합해보면, 아동은 성별, 연령, 인종과 같은 생물학적 기준 이외에도 티셔츠 색깔, 자원의 양과

같이 비생물학적 요인을 기반으로 또래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기준들 간에 우선 순위가 존재하는데, 생물학적 기준의 경우 유아기 아동은 인종보다는 연령과 성별을, 연령보다는 성별을 기준으로 또래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Kim & Kim, 2020; Shutts et al., 2010). 하지만, 앞서 언급한 최소집단과 자원의 양에 기반한 또래선호에 대한 연구는 국외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반복 검증한 연구는 부재하다. 더불어 현재까지, 비생물학적 요인 간의 상대적인 영향성을 탐색한 연구는 국내외에 부재하다.

최근 국내에서 만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소 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 구성원이 자원이 없는 개인에게 자원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밝히면서 최소집단이 또래선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바 있으나(박주향, 진경선, 2020), 실제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 선호가 국내 아동의 또래선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바 없었다. 하지만, 여러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최소집단의 효과성이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유럽계 캐나다인은 내집단 편향이 나타난 반면 동아시아인은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Ng et al., 2016), 일본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집단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미국인에게 내집단 편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Falk et al., 2014). 이러한 결과는 최소 집단의 효과가 문화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Falk et al., 2014; Ng et al., 2016),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한 또래선호를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1) 자원의 양에 따라 또래선호가 달라지는지(실험 1a), 2) 최소집단에 근간한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지(실험 1b)를 우선적으로 검증한 후, 국내외 최초로 3)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이 또래선호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실험 2).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형성된 내집단(vs.외집단)에 기반한 유아의 또래 선호가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향성임을 확인하고, 두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성을 검증함으로써 자원의 양 혹은 내집단에 기반한 차별과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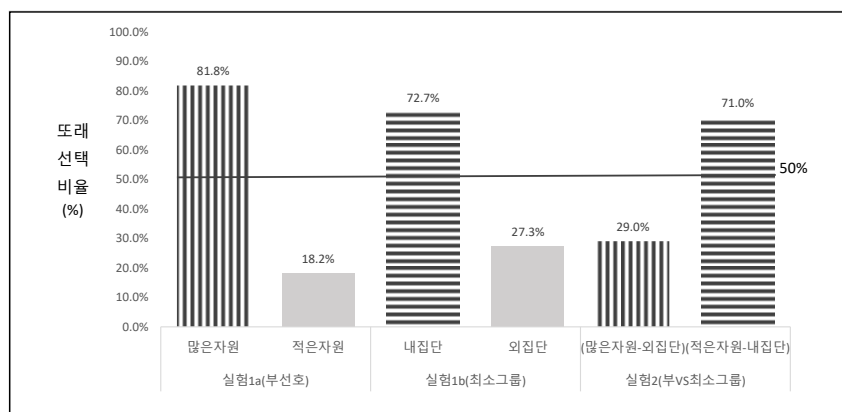


그림 1. 각 실험별 또래선호 결과

이르면 만 4세부터 자원의 양에 대한 개념 형성을 기준으로 또래선호를 보인다는 연구(Li et al., 2014; Shutts et al., 2016)와 이 시기부터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한 또래선호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Dunham et al., 2011)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각 실험별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실험 1a. 만 4~6세 아동은 자원의 양이 많은 또래를 자원의 양이 적은 또래보다 선호하는가?

실험 1b. 만 4~6세 아동은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 또래를 외집단 또래보다 선호하는가?

실험 2. 만 4~6세 아동은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 중에 어떤 기준을 근간으로 또래를 선택할 것인가?

실험 1a

실험 1a는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자원의 양에 기반한 또래선호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자원의 양에 따른 또래선호 실험은 청주시의 유치원 2곳의 협조를 구해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기관장의 협조를 얻어 부모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배부하였고 동의를 한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자료수집과 연구절차는 00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0000-201811-SB-0158).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남아 10명, 여아 12명으로 총 22명이며, 평균 연령은 4.64세(평균 월령: 63.46개월, 월령 범위:

48-74개월)였다. 부모의 동의를 얻은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이 시작되기 전 아동에게 다시 한번 실험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 실험은 사전에 연구 시나리오에 관해 교육을 받은 연구자 한 명과 한 명의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실험자극

실험에 사용된 사진은 참여하는 아동과 비슷한 연령의 아동 사진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선호도 통제를 위해 실험에 참가하는 아동과 같은 성별의 아동 사진을 사용하고 자원의 많고 적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플레이도우를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사진의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실험절차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Li 외(2014)의 연구 절차와 동일하게 자원의 양이 적은 또래 표현 시 플레이도우 1개를, 자원의 양이 많은 또래 표현 시에는 플레이도우 3개를 매칭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장소에 참가 아동이 들어오면 노트북이 놓인 책상 앞에 앉도록 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그림 2. 부 선호 실험 사진 예시

동의를 구하였다. 아동이 자리에 앉아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실험은 한 명당 3~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에게는 노트북을 통해 같은 성별의 아동 사진 두 장을 한 슬라이드로 보여주었다. 자원의 양에 따른 또래선호 실험에서는 플레이도우의 개수를 다르게 하여 자원의 많고 적음을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슬라이드에 같은 성별의 3개의 플레이도우를 가진 아동의 사진과 1개의 플레이도우를 가진 아동의 사진을 함께 보여준 후 “이 친구는 플레이도우를 1개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플레이도우를 3개 가지고 있다. OO는 누구와 놀이를 하고 싶어?”라고 질문하여 참여 아동의 자원의 양에 기반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플레이도우의 개수는 한 쪽에 고정하여 진행하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의 플레이도우 개수를 바꾸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시나리오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선택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자원의 양에 따른 선호 결과는 <그림 1, 원편>에 제시하였다. 참가 아동이 플레이도우 1개를 가진 아동을 선택할 경우 0, 플레이도우 3개를 가진 아동을 선택할 경우 1로 코딩하였다. 또한 참가 아동이 3개의 플레이도우를 가진 아동을 우연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원의 양에 따른 선호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호(선호=1)와 비선호(비선호=0) 사이의 중간값인 0.5를 검정값으로 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1)=3.78, p<.01$). 총 22명의 아동 중 18명의 아동(81.8%)이 플레이도우 3개를 가지고 있는 또래와 놀이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여 자원의 양이 많은 아동을 우연히 선택했을 경우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Shutts, 2015; Shutts et al., 2016)와 마찬가지로 만 4~6세에는 자원의 양(플레이도우)이 더 많은 아동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유아의 자원의 양에 따른 선호도는 연령($r(20)=-.09, p=.68$) 및 성별($r(20)=-.28, p=.21$)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양의 자원을 가진 또래와 어울리기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연령 및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실험 1a 자원 선호도 차이 ($N=22$)

	변인	<i>n</i>	<i>M(SD)</i>	<i>t</i>
선호도	플레이도우 1개	4	0.82(0.40)	3.78**
	플레이도우 3개	18		

$p<.01$.

표 2. 실험 1a 상관계수 (N=22)

변인	1	2	3
1 자원양 선호도	-		
2 연령	-.09	-	
3 성별	-.28	-.06	-

실험 1b

실험 1b는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최소집단 기준으로 형성된 내집단에 대한 또래선호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림 3. 최소집단 선호 실험 사진 예시

연구대상

최소집단 선호 실험은 지역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행사주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해진 부스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이 시작되기 전 다시 한 번 실험 참여에 대한 아동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가 아동은 남아 14명, 여아 8명으로 총 22명의 아동이 실험에 참가하였고 평균 연령은 5.05세(평균 월령: 66개월, 월령 범위: 53-78개월)였다. 실험은 사전에 연구 시나리오에 관해 교육을 받은 연구자 한 명과 한 명의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실험자극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Dunham 외(2011)의 연구 절차와 유사하게 티셔츠 색깔로 최소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사진은 연구 1a에서 사용된 사진과 동일하다. 연구 1a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

른 또래선호도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에 참가하는 아동과 같은 성별의 또래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사진의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실험절차

실험 장소에 참가 아동이 들어오면 노트북이 놓인 책상 앞에 앉도록 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동의를 구하였다. 아동이 자리에 앉아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실험은 티셔츠 입는 시간을 포함하여 한 명당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은 연구에 참여하는 순서대로 초록 또는 주황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였으며, 각 집단에 비슷한 수의 아동이 참여하도록 집단별 참여 아동 수를 체크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집단에 배정된 후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이야기해주며(예: “OO는 오늘 주황색(초록색)팀이야. 그러니 주황색(초록색)티셔츠를 입자.”) 초록 또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혀주어 소속감이 두드러지게 하였다. 노트북 화면의 한 슬라이드에 같은 티셔츠를

표 3. 실험 1b 최소집단 선호도 차이 (N=22)

변인	n	M(SD)	t
선호도	자신이 속한 집단	0.73(0.46)	2.34*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		

$p < .05$.

입은 유아의 사진과 다른 티셔츠를 입은 유아의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이 친구는 주황색 집단이고 이 친구는 초록색 집단이야. OO는 둘 중에 누구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싶어?”라고 질문하여 참여 아동이 어떤 아동과 놀고 싶은지 질문해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티셔츠의 색상은 한쪽으로 고정하여 진행하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 사진의 티셔츠 색깔을 바꾸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시나리오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선택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최소집단에 따른 선호도는 <그림 1, 가운데>에 제시하였다. 유아가 자신이 속한 최소집단을 선택

하지 않는 경우 0을, 자신이 속한 최소집단을 선택하는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유아가 자신의 속한 집단에 대한 선호도를 우연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내집단 선호도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집단선호(1)와 외집단선호(0) 사이의 중간값인 0.5를 검정값으로 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1)=2.34, p < .05$). 총 22명의 아동 중 16명의 아동(72.7%)이 자신과 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은 최소집단의 아동을 선택하여, 자신이 속한 최소집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우연히 선택하는 경우보다 많아 자신의 최소그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아동에게도 최소집단 선호도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한 것으로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최소집단의 간접적인 선호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박주향, 진경선, 2020; Dunham et al., 2011)의 결과와 같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함과 동시에 국내의 만 4세 아동에게도 최소집단 선호도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아의 최소그룹에 대한 선호는 연령($r(20)=.04, p=.86$) 및 성별($r(20)=.17,$

표 4. 실험 1b 상관계수 (N=22)

변인	1	2	3
1 최소집단 선호도	-		
2 연령	.04	-	
3 성별	.17	.05	-

$p < .44$)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형성된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연령 및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2

앞서 진행한 실험 1a와 1b을 통해서 국내 아동에게도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한 내집단 선호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형성된 내집단 중 어떤 요인을 토대로 토래를 선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2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사전에 연구 시나리오에 관해 교육을 받은 연구자 한 명과 한 명의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실험은 청주지역 유치원의 협조를 구해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부모에게서면으로 동의서를 배부하였고 동의를 한 부모의 자녀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아동에게도 다시 한번 실험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 모든 자료수집과 연구절차는 OO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0000-201811-SB-0158). 연구 참가 아동은 남아 19명, 여아 12명으로 총 31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5.23세(평균 월령: 67.58개월, 월령 범위: 56-79개월)였다.

실험자극

실험에 사용된 사진은 실험1a와 1b에서 사용된 사진을 실험 2의 시나리오에 맞게 자원의 양을 다르게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연구에 사용된 사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에 참가하는 아동과 같은 성별의 토래 사진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사진의 예시는 그림 4와 같다.

실험절차

실험 장소에 참가 아동이 들어오면 노트북이 놓인 책상 앞에 앉도록 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동의를 구하였다. 아동이 자리에 앉아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실험은 티셔츠 입는 시간을 포함하여 한 명당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은 연구에 참여하는 순서대로 초록 또는 주황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였으며, 티셔츠 색깔을 통한 최소집단 구분은 실험 1b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후 정해진 장소의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아동을 앉게 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 슬라이드에 플레이도우의 개수가 적은 내집단(같은 색의 티셔츠) 토래와 플레이도우의 개수가 많은 외집단(다른 색의 티셔츠) 토래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림 4. 부 vs. 최소집단 선호 실험 사진 예시

누구와 놀이하고 싶은지 물었다(예: 이 친구는 초록색(주황색)팀이고, 플레이도우를 3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친구는 주황색(초록색)팀이고 플레이도우 1개를 가지고 있어. OO는 둘 중에 누구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싶어?). 자원의 양과 최소그룹 티셔츠 색은 한쪽으로 고정하여 진행하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바꾸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시나리오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선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한 선호와 내집단에 대한 선호는 <그림 1, 오른쪽>에 제시하였다. 자원의 양이 많은 아동을 선택한 경우 0, 자신과 같은 티셔츠

츠를 입은 최소집단을 선택한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자원의 양이 많은 아동과 자신과 같은 티셔츠를 입은 최소집단의 아동 중 어떤 아동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정값 0.5를 기준으로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자원의 양이 많은 아동 선호=0, 최소집단 아동 선호=1, 검정값=0.5),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0)=2.53, p<.05$). 총 31명의 아동 중 22명의 아동(71.0%)이 자신과 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은 최소집단 아동을, 9명의 아동이 플레이도우를 3개 가지고 있는 아동(29.0%)을 선택하여 플레이도우를 더 많이 가진 외집단 또래보다 플레이도우의 개수는 적지만 자신과 같은 내집단 또래를 더 선호하였다. 이는 유아가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을 자원이 많은 외집단 또래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의 양 및 최소집단에 대한 선호는 연령($r(29)=.31, p=.10$) 및 성별($r(29)=-.07, p=.71$)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및 성별과 무관하게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자원을 많이 가진 또래에 대한 선호보다 강함을 의미한다.

표 5. 실험 2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 선호도 차이 (N=31)

변인	n	M(SD)	t
선호도	자원의 양	0.71(0.46)	2.53*
	최소집단		

$p<.05$.

표 6. 실험 2 상관계수 (N=31)

변인	1	2	3
1	최소집단 선호	-	
2	연령	.31	-
3	성별	-.07	-.12

종합논의

본 연구는 국내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에 대한 선호를 확인하고, 두 비생물학적 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험 1a에서는 선행연구(Li et al., 2014; Olson & Shutts, 2010; Shutts et al., 2016)와 마찬가지로 국내 아동들 역시 자원이 적은 또래보다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아동들도 수혜를 얻은(advantaged)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Olson et al., 2006; Olson et al., 2008). 수혜 집단에 대한 아동의 선호는 정서적 태깅(affective tagging; Olson et al., 2008)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가령, 아동들이 자원의 양에 대한 정보를 외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또래(혹은 인형)를 더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인다(Li et al., 2014; Myślińska-Szarek & Baryła, 2018)는 연구는 아동이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예: 많은 자원)과 연합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험 1b에서는 국내 아동들 역시 임의적인 기준으로 형성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면에 따라 티셔츠 색깔이 정해지는 상황에서도 자신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내집단을 자신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외집단보다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Dunham et al., 2011) 최소한의 단서를 기준으로 형성된 내집단에 대한 선호는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내집단에 대한 강한 선호는 또래가 가지

고 있는 자원의 양에 대한 선호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최소집단 패러다임을 통해 자원은 많지만 외집단인 또래와 자원은 적지만 내집단인 또래 중 누구에 대한 선호가 높은지를 검증함으로써 두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외집단 또래보다 자원은 적지만 자신과 같은 티셔츠를 입은 내집단 또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의 양보다 최소집단 패러다임으로 형성된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또래 선택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아의 반응은 진화론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강한 내집단 선호는 인간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 온 과정에서 획득한 적응 기제라 여긴다. 아동들이 내집단 구성원에게는 친사회적으로 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외집단 구성원에게는 이러한 도덕적 원리를 덜 적용한다는 선행연구(Bian et al., 2018; Yu et al., 2016)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는 외집단의 구성원은 놀잇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나누어 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집단 또래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불어, 진화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집단의 생존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는데(Bailargeon et al., 2015), 이러한 해석은 만 5세 유아들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집단 구성원이 자신의 자원을 공유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주향, 진경선, 2020; Bia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내집단의 구성원이 충분한 놀잇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같이 놀잇감을 함께 공유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가지

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이 많은 외집단 또래보다는 자원이 적은 내집단 또래를 선택했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자극으로 사용한 플레이도우는 곰 인형, 자동차 장난감 등과는 다르게 아동들이 쉽게 쪼개어 사용할 수 있는 놀잇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규범적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 자원의 양보다 내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성은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라 볼 수 있다(Sherif & Sherif, 1953). 다시 말해, 아동은 내집단 구성원에게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회집단 구성원을 보면서 내집단 선호에 대한 경향성이 강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사회적 자본을 근간으로 명시적으로(explicit) 또래를 선택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기에 자본의 양에 기반한 또래 선호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자원을 많이 가진 또래가 외집단에 속할 경우,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또래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본 연구결과와는 이 시기 아동들에게 같은 집단에 속했다는 소속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자원의 양과 같은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으로 인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준을 통해 임의적으로 할당된 최소집단으로 쉽게 재조직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Dovidio et al., 2010)는 다른 집단에 속해보는 재조직(re-categorization)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집단에 대한 편향 역시 낮출 수 있음을 제안한다(Dovidio et al., 1997). 비록 본 연구에서는 티셔츠 색깔에 기반해 최소집단을 형성했지만, 좋아하는 그림을 토대로 혹은 동전을 던져 형성된 집단

에도 최소집단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는(Dunham et al., 2011; Tajfel, 1970) 보다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형성된 집단에서도 최소집단의 효과가 나타남을 시사한다. 가령, 팀 활동을 할 때, 성별과 같이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항상 같은 집단에 속하게 하는 것보다 입고 있는 옷 중에 빨간색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자유 선택 활동시간에 음률영역에서 놀이를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다양한 집단에 속하게 하는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존의 내집단에 대한 편향 역시 낮출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3개의 실험 모두에서 연령과 성별이 아동의 또래선호와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소집단을 근간으로 한 내집단 선호, 자원의 양에 근간을 둔 또래선호, 자원의 양보다는 내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만 4~6세 아동에게서 그리고 남아, 여아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소집단 및 자원의 양에 따른 또래선호가 아동의 연령 또는 성별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음을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hl & Dunham, 2017; Dunham et al., 2011). 특히,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내집단 및 자원의 양에 대한 선호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쌓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선호이기보다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획득되는 또래 상호작용에 따른 선호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일찍 자원의 양에 기반한 선호 혹은 최소집단으로 나뉜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발달할까? 자원의 양 혹은 최소집단에 기반한 내집단 또래선호는 단순히 좋고, 싫음의 평가를 넘어 다양한 영역의 발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선호하는 또래를 지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양에 기반하여 직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지발달(김정신, 2012; 박혜은, 박경자, 2014; Nelson et al., 2005)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자원의 양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기반으로 집단을 나눌 수 있으며(Olson et al., 2012), 특정 집단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implicit attitude)를 형성하는 사회적 발달(Cvencek et al., 2011) 역시 수반되어야 가능하기에 적어도 전조작적 사고 단계에 이른 유아들에게서 이러한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만 4~6세 아동에게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형성된 내집단과 자원을 많이 가진 또래 중 어떤 또래를 더 선호하는지 선택하게 하여 또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학적 변인에 대해 알아 보았다. 하지만 왜 아동이 자원을 많이 가진 또래에 비해 내집단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아동이 최소집단으로 형성된 내집단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본인과 같은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단이 좋아지는 긍정편향이 생길 수 있으며(McAuliffe & Dunham, 2016), 또 다른 가능성은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욱 호의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집단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Bian et al., 201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아동이 왜 자원과 내집단 간의 선택에서 내집단을 더욱 선호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겠다.

더불어, 비록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환경을 또래로 넓혀나가는 초입에 있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이 학령기를 거치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비생물학적 변인들의 영향성이 유지 혹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가령, 자원의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는 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자원의 양이 또래 선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폭넓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비생물학적 변인 간의 상대적 영향성을 탐색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험당 참가자 수가 20~3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후속 연구에서 참가자 수를 늘려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함으로써 연구결과와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집단 패러다임과 자원의 양 간의 상대적 영향성만을 검증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비생물학적 변인의 범위를 넓혀 그 영향성을 탐색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언어는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은 언어에 근간한 강력한 내집단 선호를 보인다는 선행연구(Kinzler, 2021)를 바탕으로 자원의 양, 언어 및 최소집단을 기준으로 형성된 내집단이 또래 선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성을 검증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외 최초로 자원의 양과 최소집단이 또래선호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성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자주 접하는 환경이나 교육과정에 최소집단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발달하는 사회적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정신 (2012). **유치원 만 3세반 유아들의 친구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향, 진경선 (2020).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 학령전기 아동의 내·외집단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69-85.
<http://doi.org/10.35574/KJDP.2020.6.33.2.69>
- 박혜은, 박경자 (2014). 또래가 선호 또는 비선호하는 유아의 행동 특성. **생애학회지**, 4(2), 41-59.
<http://doi.org/10.35574/KJDP.2020.6.33.2.69>
- 이태영 (2011). **유아가 선호하는 친구에 대한 인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이강이 (2014).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외모와 언어 단서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 **아동학회지**, 35(2), 85-102.
<http://dx.org/10.5723/KJCS.2014.35.2.85>
- 홍순옥 (2003).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유아의 동성 친구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4, 315-338.
<http://doi.org/dx.org/10.5723/KJCS.2014.35.2.85>
- Abel, H., & Sahinkaya, R. (1962). Emergence of sex and race friendship preferences. *Child Development*, 33(4), 939-943.
<https://doi.org/10.2307/1126904>
- Ahl, R. E., & Dunham, Y. (2017). "Wealth makes many friends": Children expect more giving from resource rich than resource poor individuals. *Child Development*, 90(2), 524-543.
<https://doi.org/10.1111/cdev.12922>
- Baillargeon, R., Scott, R. M., He, Z., Ioane, S., Setoh, P., Jin, K., Wu, D., & Bian, L. (2015). Psychological and sociomoral reasoning in infancy. In M. Mikulincer, P. R. Shaver (Eds), E. Borgida, & J. A. Bargh (Assoc. Eds.), *APA handbook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 Attitudes and social cognition* (pp. 79-15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4341-003>
- Bian, L., Sloane, S., & Baillargeon, R. (2018). Infants expect ingroup support to override fairness when resources are lim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11), 2705-2710.
<https://doi.org/10.1073/pnas.1719445115>
- Buttelmann, D., & Böhm, R. (2014). The ontogeny of the motivation that underlies in-group bias. *Psychological Science*, 25(4), 921-927.
<https://doi.org/10.1177/0956797613516802>
- Cvencek, D., Greenwald, A. G., & Meltzoff, A. N. (2011). Measuring implicit attitudes of 4-year-olds: The preschool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9(2), 187-200.
<https://doi.org/10.1016/j.jecp.2010.11.002>
- Dovidio, J. F., Johnson, J. D., Gaertner, S. L., Pearson, A. R., Saguy, T., & Ashburn-Nardo, L. (2010). Empathy and intergroup relations. In M. Mikulincer, & Shaver, P.

- R. (Eds.), *Prosocial motives, emotions, and behavior: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pp. 393-408).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2061-020>
- Dovidio, J. F., Gaertner, S. L., Validzic, A., Matoka, K., Johnson, B., & Frazier, S. (1997). Extending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Evaluations, self-disclosure, and help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4), 401-420.
<https://doi.org/10.1006/jesp.1997.1327>
- Dunham, Y., Baron, A. S., & Banaji, M. R. (2006). From American city to Japanese village: A cross cultural investigation of implicit rac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77*(5), 1268-128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6.00933.x>
- Dunham, Y., Baron, A. S., & Banaji, M. R. (2008). The development of implicit intergroup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2*(7), 248-253.
<https://doi.org/10.1016/j.tics.2008.04.006>
- Dunham, Y., Baron, A. S., & Carey, S. (2011). Consequences of “minimal” group affiliation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82*(3), 793-81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1.01577.x>
- Dunham, Y., & Emory, J. (2014). Of affect and ambiguity: The emergence of preference for arbitrary ingroups. *Journal of Social Issues, 70*(1), 81-98.
<https://doi.org/10.1111/josi.12048>
- Falk, C. F., Heine, S. J., & Takemura, K. (2014). Cultural variation in the minimal group effec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2), 265-281.
<https://doi.org/10.1177/0022022113492892>
- French, D. C. (1987).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with older, younger, and same-age pe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1), 63-86.
<https://doi.org/10.1177/0265407587041005>
- Horwitz, S. R., Shutts, K., & Olson, K. R. (2014). Social class differences produce social group preferences. *Developmental Science, 17*(6), 991-1002.
<https://doi.org/10.1111/desc.12181>
- Kim, J. & Kim, G. (2020) Korean children's preference formation based on social categories: comparison between gender cues and age cue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199-212,
<https://doi.org/10.1080/17405629.2018.1561363>
- Kinzler, K. D. (2021). Language as a social cu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2*, 241-264.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10418-103034>
- Li, V., Spitzer, B., & Olson, K. R. (2014). Preschoolers reduce inequality while favoring individuals with more. *Child*

- Development*, 85(3), 1123-1133.
<https://doi.org/10.1111/cdev.12198>
- Myślińska-Szarek, K., & Baryła, W. (2018). Preschoolers' preferences and moral judgements are biased towards those who have more resources.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49(2), 235-239.
<http://doi.org/10.24425/119491>
- Maccoby, E. E., & Jacklin, C. N. (1987). Gender segregation in childhood. In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20, 239-287.
[https://doi.org/10.1016/S0065-2407\(08\)60404-8](https://doi.org/10.1016/S0065-2407(08)60404-8)
- McAuliffe, K., & Dunham, Y. (2016). Group bias in cooperative norm enforcement.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71(1686), 20150073.
<https://doi.org/10.1098/rstb.2015.0073>
- Nelson, D. A., Robinson, C. C., & Hart, C. H. (2005).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of preschool-age children: Peer status linkages across informant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6(2), 115-139.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1602_2
- Nesdale, D., & Flessner, D. (2001). Social identity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group attitudes. *Child Development*, 72(2), 506-517.
<https://doi.org/10.1111/1467-8624.00293>
- Ng, A. H., Steele, J. R., & Sasaki, J. Y. (2016). Will you remember me? Cultural differences in own-group face recognition bia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4, 21-26.
<https://doi.org/10.1016/j.jesp.2016.01.003>
- Olson, K. R., Banaji, M. R., Dweck, C. S., & Spelke, E. S. (2006). Children's biased evaluations of lucky versus unlucky people and their social groups. *Psychological Science-Cambridge-*, 17(10), 845-846.
- Olson, K. R., Dunham, Y., Dweck, C. S., Spelke, E. S., & Banaji, M. R. (2008). Judgments of the lucky across development and cul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5), 757-776.
<https://doi.org/10.1037/0022-3514.94.5.757>
- Olson, K. R., & Shutts, K. (2010).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1-3.
<https://doi.org/10.1002/9780470479216.corpsy0886>
- Paulus, M., Gillis, S., Li, J., & Moore, C. (2013). Preschool children involve a third party in a dyadic sharing situation based on fairnes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6, 78-85.
<https://doi.org/10.1016/j.jecp.2012.12.014>
- Plötner, M., Over, H., Carpenter, M., & Tomasello, M. (2015). The effects of collaboration and minimal-group

- membership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liking, affiliation, and trus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39, 161-173.
<https://doi.org/10.1016/j.jecp.2015.05.008>
- Sherif, M., & Sherif, C. W. (1953). *Groups in harmony and tension: An integration of studies of intergroup relations*. Oxford, England: Harper & Brothers.
- Shutts, K. (2015). Young children's preferences: Gender, race, and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9(4), 262-266.
<https://doi.org/10.1111/cdep.12154>
- Shutts, K., Banaji, M. R., & Spelke, E. S. (2010). Social categories guide young children's preferences for novel objects. *Developmental Science*, 13(4), 599-610.
<https://doi.org/10.1111/j.1467-7687.2009.00913.x>
- Shutts, K., Brey, E. L., Dornbusch, L. A., Slywotzky, N., & Olson, K. R. (2016). Children use wealth cues to evaluate others. *PLoS One*, 11(3), e0149360.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49360>
- Shutts, K., Kinzler, K. D., McKee, C. B., & Spelke, E. S. (2009). Social information guides infants' selection of food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0(1-2), 1-17.
<https://doi.org/10.1080/15248370902966636>
- Sigelman, C. K. (2012). Rich man, poor man: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attributions and percep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3(3), 415-429.
<https://doi.org/10.1016/j.jecp.2012.06.011>
- Tajfel, H. (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5), 96-103.
- Taylor, M. G., & Gelman, S. A. (1993). Children's gender and age based categorization in similarity and induction tasks. *Social Development*, 2(2), 104-121.
<https://doi.org/10.1111/j.1467-9507.1993.tb00006.x>
- Yu, J., Zhu, L., & Leslie, A. M. (2016). Children's sharing behavior in minidictator games: The role of in-group favoritism and theory of mind. *Child Development*, 87, 1747-1757.
<https://doi.org/10.1111/cdev.12635>

In-group bias trumps amount of resource bias

Yeoul Shin¹

Woori Jo²

Daeun Park³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Student¹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³

From an early childhood, children evaluate others based on the amount of resources, and they tend to prefer wealthy individuals over poor ones. What is less clear is how strong this bias is in children. The present study probes the relative strength of amount of resource bias and in-group bias, a robust bias in children. Prior to, conducting our analysis we first confirmed that four to six year-old children preferred peers with more resources (Study 1a) and those who were in the same group (wearing the same color t-shirt that they were wearing; Study 1b). Importantly, children preferred an in-group member with less resources over a outside the with more resources, suggesting that the in-group membership is a stronger social cue than the amount of resource cue in early childhood.

Keywords : amount of resources, minimal group, in-group, peer preference

부 록

1. 자원의 양 선호 실험 시나리오

안녕? 나는 000이야.

지금부터 노트북으로 @@이하고 비슷한 아이 둘을 보여줄 건데, 두 명 중에 @@이가 원하는 아이를 선택하면 돼. 해줄 수 있어?

(동의하면) 그럼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 친구는 플레이도우를 1개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플레이도우를 3개 가지고 있다. @@이는 누구하고 놀이를 하고 싶어?

2. 최소집단 선호 실험 시나리오

안녕? 나는 000이야.

지금부터 노트북으로 @@이하고 비슷한 아이 둘을 보여줄 건데, 두 명 중에 @@이가 원하는 아이를 선택하면 돼. 해줄 수 있어?

(동의하면) 그럼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는 오늘 주황색(초록색)팀이야. 그러니 주황색(초록색)티셔츠를 입자.

(티셔츠를 입은 후)

이 친구는 주황색(초록색) 집단이고 이 친구는 초록색(주황색) 집단이야, @@이는 둘 중에 누구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싶어?

3. 자원의 양 VS 최소집단 선호 실험 시나리오

안녕? 나는 000이야. 지금부터 노트북으로 @@이하고 비슷한 아이 둘을 보여줄 건데, 두 명 중에 @@이가 놀고 싶은 아이를 선택하면 돼. 해줄 수 있어?

(동의하면) 그럼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는 오늘 주황색(초록색)팀이야. 그러니 주황색(초록색)티셔츠를 입자.

(티셔츠를 입은 후)

봐봐. 이 친구는 초록색(주황색)팀이고, 플레이도우를 3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친구는 주황색(초록색)팀이고 플레이도우 1개를 가지고 있어. @@이는 둘 중에 누구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싶어?